

전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경전의 원리를 비판한다면 대안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서학의 자연관의 내용이 서양학문의 소개였고, 그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원시유학 경전에 바탕을 둔 것과는 반대로 서양의학의 용어나 개념들은 원시유학 경전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고, 비판하는 차원에서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茶山의 비판적인 태도는 그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뒤에 이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기능주의 종교심리학의 발달 : 1900-1925

위스컨신대 김 제 현

I. 서 론

과학의 역사는 과학이 제반 사회적·문화적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서구의 경우 종교, 특히 기독교는 서구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종교와 과학간의 관계는 역사의 진행과 함께 복잡하고 미묘한 변천을 하여 왔다. 과학혁명기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다윈의 진화론의 경우와 같은 기독교 교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과학적 발견들은 과학과 종교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19세기에 들어 오면서 과학과 신학연구의 전문화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 시기 동안 급속히 발전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

구는 종교의 권위와 교리로부터 과학연구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종교현상 자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프레지어와 타일러 등의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종교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였고, 뒤르켐과 마르크스 등은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종교현상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19세기에 급속히 이론화, 전문화 과정을 겪는 또 하나의 사회과학 분야인 심리학에서도 시도되었다.

종교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즉 종교심리학은 통상 두 가지 흐름으로 발전하였다고 설명된다. 그 하나는 프로이드와 융 등에 의하여 발전한 무의식 및 잠재의식 개념을 통한 종교현상 및 행위에 대한 무신론적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William James와 G.S. Hall 등의 미국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된 종교 현상에 대한 記述的, 현상적 연구였다. 오늘날 심리학에서 단지 사회심리학의 부수적 과제로 취급되는 종교심리학은 20세기 초엽 특히 미국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활발히 연구되어 종교심리학 학술지가 간행되었고 *Psychological Bulleti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등의 학술지에 종교심리학 분야의 서평 및 문헌목록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종교심리학은 심리학의 이론화, 실험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여 1930년 이후에 급격히 쇠퇴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종교심리학은 제임스와 홀 등의 업적을 통하여 간간히 언급될 뿐 그것의 학문적 성격 및 意義의 역사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종교심리학이 기능주의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초기의 기술적, 현상적 연구로부터 종교에 대한 자연주의적, 비판적 연구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미국 종교심리학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키고, 나아가서 그 운동의 의미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II. William James와 초기의 종교심리학

미국 종교심리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종교심리학의 형성 단계에 있어서의 제임스와 홀의 절대적 영향력에 기인한다. 19세기 미국 심리학의 거두인 두 학자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많은 심리학자, 특히 그들의 제자들 사이에 종교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고, 그들의 종교적 관점과 연구방법은 초기 연구의 철학적, 방법론적 바탕을 형성하였다. 제임스와 홀은 여타 사회과학 분야의 종교에 관한 연구의 성과를 인식하였고 따라서 종교의 심리학적 연구가 가능하고 또한 요구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기독교도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종교심리학의 목표는 종교현상의 과학적 비판이나 환원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을 위한 종교적 체험의 경험적, 분석적 연구였다.

종교심리학의 선구적 작업은 홀의 1880년대의 성장과정, 특히 사춘기의 육체적, 종교적 발달에 관한 통계적 연구였다. 홀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육체의 성장, 정서적 기질, 교육환경 등이 청소년의 종교적 체험과 개종(conversion) 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일련의 연구는 그의 역작인 *Adolescence*(1904)로 집약되었다. E.D. Starbuck 등 클라크대학의 그의 제자들과 G.A. Coe 등은 홀의 연구를 계승하여 1900년대 초의 종교심리학은 종교 체험의 현상적, 통계적 분석이 그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들의 관심은 주로 종교교육에 있었으며, 종교교육과 儀式의 효율화를 위한 심리학의 유용성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종교심리학은 많은 신학교의 필수과목이 되었고 대학의 교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시기의 종교심리학의 철학적 기초는 주로 제임스의 종교관에 의하여 마련되었

다. 제임스는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1902)에서 기존의 현상적 분석에 머물지 않고 보다 철학적 문제를 언급하였다. 제임스에 의하면 종교의 근원은 합리적 의식보다 깊은 차원의 종교적 본능에 있으며 종교의 신비적 체험은 잠재의식을 통한 초자연적 존재의 직접적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신비적 체험은 일상적 의식의 경험보다 우월하며 초월적 존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게 하여 준다. 이러한 제임스의 경건하고 신비적인 종교관은 초기 종교심리학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으며, 따라서 초기 종교심리학은 종교의 과학적, 비판적 분석이기보다, 경건한 종교관에 입각한, 종교의 실체적 필요를 위한 경험적, 통계적 연구였다.

III. 기능주의 종교심리학의 발전

19세기 말부터 미국 심리학의 주류로 형성되기 시작한 기능주의는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을 심리학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능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의식을 여러 요소로 분해하기를 거부하고 개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고, 정신-생리학적 유기체의 기능을 연구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제임스에 의하여 비롯되어 Dewey와 Angell에 이르러 이론적 체계를 갖추었는데, 흥미있는 사실은 제임스에 의하여 기초된 기능주의가 종교심리학에 도입되어 기존의 종교심리학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이다.

기능주의 종교심리학의 선구자는 J.H. Leuba였는데, 그는 “천문학, 생물학, 비판적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발생한 과학과 종교간의 갈등이 이제 심리학의 분야로 옮겨졌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종교심리학의

역할을 부정하였다. 홀의 지도 하에 씌어진 박사 논문(1896)에서 그는 개종(conversion)에 관하여 통계분석 대신 개종은 도덕적 욕구만족이라는 내적 적응을 통해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일환이며 종교 교리의 진리는 우리의 생존의 욕구의 충족을 위한 그것의 유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기능주의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1900년 이후 Leuba는 많은 논문을 통하여 종교는 인간의 생존욕구 충족을 위한 여러 의식적 행위의 한 종류이며, 신은 인간이 욕구의 충족을 위해 도입한 하나의 작업가설(working hypothesis)이며 기능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종교적 행동은 일상적 행동과 그것이 신이라는 기능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Leuba에 의하여 제시된 기능주의 해석은, 1910년에 출간된 Ames의 *The Psychology of Religious Experience*와 King의 *The Development of Religion*에서 사회심리학적 해석으로 나타난다. 그들에 의하면 종교는 개체가 처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신-생리학적 유기체의 기능적 활동의 한 형태이며 신은 의인화된 사회적 가치로 이해된다. 신의 존재는 그것이 의식 개체의 사회적 적응에 유용할 경우에 실재성을 부여받는 기능적 존재이며 신의 개념과 속성은 결국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인간사회의 진화에 따라 진화하는 것이다. 신의 존재에 그 이외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사이비 심리학'의 특징인 것이다.

1910년을 경계로 하여 기능주의는 종교심리학의 새로운 주류로 대두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Pratt와 Coe 등 제임스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학자들도 1910년 이후의 저술에서 기능주의 해석을 수용하면서 제임스의 종교철학의 핵심적 내용을 일제히 비판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종교가 인간의 '종교적 본능'에 기인한다는 설

명을 부인하고 엄밀한 의미의 본능은 오직 생존을 위한 생물적 본능 뿐이며 종교적 본능이란 단지 경험적 근거가 없는 형이상학적 가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신비적 경험의 우월성에 대하여는 변태심리학 등의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신비적 경험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물리적 원인에 의한 의식의 연상작용의 저하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논증하였다. 초월적 실체의 매개체로서 잠재의식의 작용에 대하여는 잠재의식이란 단지 개인의 이전의 경험과 사회적 유전 결과 생성된 의식의 표면화되지 않은 부분이지 의식에 대하여 독립하여 존재하는 우월한 잠재의식의 도입은 과학적 증거에 압도당한 신비주의자의 궁여지책이라고 공박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능주의가 제임스의 종교철학을 대치하는 종교심리학의 새로운 조류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 종교심리학은 새로운 방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IV. 기능주의 종교심리학의 성격과 의의

기능주의의 도입은 기존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종교현상의 경험적, 현상적 연구를 종교의 본질을 포함하는 종교 전반에 대한 자연주의적, 비판적 논의로 전환시켰다. 심리학자들 사이에 금기시되어 왔던 신의 기원 및 신비적 경험의 본질 등이 철저하게 자연적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며, 심리학자들은 신학의 충실한 보조자가 아닌 형이상학적 신학의 과학적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은 20세기 초까지 남아 있던 심리학의 철학적 성향을 보여주고, 따라서 심리학의 이론화, 실험화 추세에 밀려 1930년대 이후 쇠퇴하였지만 그 당시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종교의 폐쇄적 권위에 대한 과학정신의 위대한 도

전이며 동시에 인간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종교심리학이 홀과 제임스에 의하여 대표되는 현상적, 기술적 연구였다는 설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미국 종교심리학의 새로운 측면은 그 운동의 쇠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종교심리학은 친종교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신학의 목회심리학으로 흡수되어 학문적 영향력을 잃었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목회심리학으로 흡수된 부분은 초기 형태의 연구였고 실제 연구의 추세는 그와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종교계에서는 기능주의 종교심리학

에 심한 경계를 보였으며, 목회심리학의 성장은 기능주의 종교심리학의 위협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것이다. 결국 목회심리학과 기능주의 종교심리학의 분화는 종교심리학에 대한 종교계의 제도적 후원의 단절을 의미하였다. 종교심리학이 실험과학보다는 철학적 논의의 차원에 머물고, 종교의 후원도 상실하였을 때 과학정신을 표방한 대담한 시도는 지속되지 못했던 것이다.

기능주의 종교심리학은 미국의 문화가 성성한, 다원주의의 종교에 대한 충격의 새로운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종교와 과학의 상호작용의 역사에서 의미있는 사실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